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3년 5월 12일(금)
--(음력 3월 23일)--
Пятница
12 мая 2023г.
№ 18 (12035)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5월 15일은 국제 가정의 날이다. 변화하는 현 세계에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인간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유엔이 선정한 날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공원에서. (이예식 기자 촬영)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린 군사행진에 1,000여 명 참가

5월 9일(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린 전승절 기념식이 영예 광장에서 현화로 시작되어 이후 승리광장으로 이동하여 군인, 국방부 대표들, 카자크, 군관학교 생도와 청소년 생도들이 열을 지어 행진을 했다. 78주년 대조국전쟁 전승 축하에 1천여 명의 사람들이 참여한 가운데 행진 대열을 뒤따라 러시아 군사장비의 자부심을 보여주는 군사 차량의 행진이 이어졌다.

불멸의 성화에서는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를 비롯한 연방 및 지역 정부 기관 대표들, 유즈노사할린스크 행정부, 종교계, 군관계, 참전용사, 시구빈 대표자들이 화환과 꽃으로 현화했다.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사할린의 장병 2만 명 이상이 전쟁터로 나가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참전하여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유럽의 국가들을 해방시켰다.

5월 9일 승리의 후손들이 모여 전사자들을 추모하며,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승리의 날은 우리 국민의 단합과 강인한 정신력을 보여준 날이며, 조국을 향한 사랑과 단합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게 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어 불굴의 정신과 끈기를 드러냈습니다."라고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기념사를 전했다.

이어 '장엄한 전쟁' 알렉산드르 알렉산드로브의 명곡으로 기념 행진이 시작됐다. 기수들은 러시아 연방 국기와 1945년 5월 독일 베를린의사당에 꽂았던 승리의 깃발과 똑같은 것을 들고 행진에 나섰다. 뒤를 이어 장교들의 대열, 사할린 지역의 군부대 및 육해공 연합 장병들, 사할린 국방부 대표들이 힘차게 걸음을 내디뎠다. 특히 여성 군관학교 생도들과 카자키, 여군이 눈에 띄었다.

(3면에 계속)

제5회 <러시아의 지도자들> 경영자 경연 참가등록, 5월 14일까지 계속

'러시아는 기회의 땅' 대통령 지원 선도기획인 <러시아의 지도자들> 제 5주년 기념 경영자 경연 참가 등록이 5월 14일까지 계속된다.

러시아와 해외 지도자들로서는 이 기회를 통해 직업적 권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받고, 개인적 개발계획을 상담받으며, 대형 회사의 지도자들과 만남을 갖고, 국내 최고 경영자들의 공동체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경영자 경연 참가 대상은 러시아 국민, 55세 이하로 2년 이상 경영 경력을 지닌 외국인이다. 참가 등록은 5월 14일까지 러시아의 지도자들 공식 사이트(лидерыроссии.рф)에서 할 수 있다.

이번 5주년 기념 <러시아의 지도자들> 경연에서는 가장 먼저 경연 참가자들의 설문 조사 후, 경영자적 자질 및 경영 유형의 개발에 따른 조언을 받게 된다.

경연은 여러 단계의 시스템 평가를 토대로 진행하며, 평가를 통해 능력개발의 수준과 경영자적 자질이 결정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1백만 루블리의 장려금이 지급돼 교육 및 러시아 최고 경영자들의 멘토와 만남의 기회를 얻고, 사회 진출을 위한 상담을 받게 된다.

<러시아의 지도자들> 경영자 경연은 2017년부터 러시아 연방 대통령의 지시로 개최되고 있다.

이 경연의 취지는 고급 지도자적 자질을 갖추고, 경영 능력을 갖춘 전망 있는 지도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있다.

단신

제2회 사할린 기록영화 축제 <사할린 아르헹페스트>,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막

5월 10일, '러시아, 나의 역사'공원에서 대통령 문화 주도 기금의 보조금 공모전에서 수상한 프로젝트 '사할린아카이브페스티벌'의 발표회가 열렸다. 사할린 국립 역사 기록보관소에 따르면 다큐멘터리 영화 축제는 사할린 주 문화와 기록 관리부 주도로 사할린 주에서 두 번째로 개최되었다.

"사할린아카이브페스티벌"은 사할린 주 지역 기록가협회와 역사 및 시립 기록보관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영화 작품들은 TV 채널 ASTV와 OTV에서 방송되고, 다큐멘터리 영화들은 지역 학교에서 역사 수업에 상영됩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시내의 가까운 문화 공원과 영화관에서도 진행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할린주 기록가협회와 역사 기록 보관소의 소셜 미디어에서 축제 행사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사할린주 기록가협회 회장 세르게이 차로츠킨이 말했다.

쿠릴열도, 어분 및 어유 생산 공장 완공

유즈노쿠릴스크 생선공장이 어분 및 어유 생산에 따른 시설 건설을 완료했다. 이 기획은 생선의 버려지는 부분을 가치 있고 유익한 식품으로 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 추진 비용은 사할린주 개발공사의 무담보 대출로 11억 루블리가 지원됐고, 연방 예산에서 약 2억4,500만 루블리가 보조금으로 지급됐다.

하루 200톤의 생산 능력을 갖춘 이 공장은 고품질 어분과 어유를 생산하는 기술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사할린 국립대학교, 군사 훈련 센터 개설

사할린 국립대학교를 거점으로 군사 훈련센터가 문을 열었다고 사할린 주정부 측이 전했다. 이제 사할린 국립대 학생들은 군사훈련을 받고 그에 걸맞는 계급을 받게 된다. 학도병의 기간은 4학기이다.

"대학 행정과와 사할린 주정부의 공동 노력으로 대학 내 군사훈련센터가 개설됐습니다. 이 센터를 통해 학생들은 군사훈련의 기초를 배울 수 있게 될 겁니다."라고 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제 1기 군사훈련이 9월1일에 시작된다. 올해 새학기부터 1학년과 2학년 대학생들이 들어가게 되며, 군사교육이 끝나면 인근 부대에서 군사훈련이 시작된다.

이 군사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예비군, 예비 하사관 계급을 받게 된다.

새고려신문

2023년 하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3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 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606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사할린 한인 단체, 어버이 날 기념

코르사코브

5월 8일은 한국에서 어버이날로 기념한다. 최근에는 사할린 한인 단체들도 1세 어르신 위주로 이 명절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부모님 은혜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좋은 취지로 진행된다.

유즈노사할린스크



규모로 보아 가장 큰 행사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림종환)에서 개최했다.

지난 6일(토) 시한인회에서 노인정에 다니는 어르신 뿐만 아니라 75세 이상 2세대도 초대해, 어르신들은 어린이들의 절도 받고 강팔용 가수의 공연을 보면서 춤도 추고 노래 따라 부르기도 하며 즐겁게 놀았다.

시한인회 회원들이 정성껏 차린 명절 밥상도 노인정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기분을 한층 돋구었다. 회원들이 직접 산에서 딴 첫 봄나물과 바다에서 채취한 해산물도 이 상에 올렸다. 이 단체는 한달에 두번 노인정 모임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다들 진심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었다.

한편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이번 행사를 여러 한인단체 공동으로 한인문화센터에서 개최하려고 했지만, 문화센터 강당이 당일 사용이 불가능해서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자체 행사로 진행했다.



같은 날 코르사코브구역한인디아스포라협회(이하 협회, 회장 이 블라디미르)에서도 1세 어르신들을 모시고 음식대접과 즐거운 수다와 노래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이 블라디미르 회장과 협회 운영위 위원들의 따뜻한 축하도 있었는데, 김 율리아 운영위 위원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인생이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라고 하는 말에 다들 공감하였다.

또한 사할린주한인협회에서 마련한 선물이 어르신들에게 전해졌다.

아니와

아니와 시에서도 1세 어르신들을 초대하여 다과를 하였다. 이 행사에 박순옥 주한인협회 회장 대행이 참가하여 이날 일부 회원들에게 사할린주 75주년 기념 기장도 전달하였다.

사할린주한인협회 측에서는 주내 1세 동포 어르신을 위해 단체에서 398개 선물세트를 마련해 1세대 모두에게 선물을 전달했다. 우글레고르스크시한인회(회장 유 예카테리나)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명절밥상을 차렸다고 전해왔다.

(배순신 기자)

(사진: 유즈노사할린스크, 코르사코브 한인회 제공)

라리사 돌리나의 음악 아카데미와 사할린주, 영구적 협력 체결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와 러시아 인민 아티스트(가수)라리사 돌리나와 협력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사할린주와 음악 아카데미는 재능있는 가수 와 음악인 발굴 및 육성에 따른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새내기 음악인과 음악교사들을 위한 교육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할린주는 라리사 돌리나의 음악 아카데미의 4번째 협력 지역이 되었다. 이에 앞서 사마라와 볼고그라드, 첼랴빈스크 주와도 협약이 체결된 가운데 지역 음악 아카데미 그룹이 결성돼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가수들과 음악인, 음악교사들과 함께 체계적인 작업을 실행하고 있다.

사할린에서는 이미 음악 아카데미 지역 보컬 그룹이 결성되었다.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쳐 선발된 22명의 학생들은 음악 아카데미의 지도교사들과 활발히 활동하며, 앞서 아카데미 교사들은 일련의 활동교실을 펼쳐 이에 사할린 주민 120여 명이 참가했다.

앞으로 계획상 사할린 지역 오케스트라와 합창단과의 활동, 사할린 그룹의 학생들, 아카데미 지도교사들, 러시아 민속 음악인 라리사 돌리나가 참여하는 공연 조직이 있다.

음악 아카데미 지도교사들의 지역 방문은 올 6월 초로 예정 돼 있다.

이 모 저 모

"추모의 정원" 캠페인의 일환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약 70그루의 나무를 심어

지난 5월 7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추모의 정원" 캠페인의 일환으로 약 70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이 자선 행사는 몇 년 전 전국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목표는 위대한 조국 전쟁에서 전사한 모든 분들을 기리기 위해 러시아 내외에 2,7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이다.

올해 사할린 지역에서는 주민, 공공기관 대표, 위대한 조국 전쟁 참전 용사, 시 행정 직원 및 대의원 등이 함께 "추모의 정원"을 확장하기 위해 모였으며, 그들은 포그라니츠나야 거리와 고리키 거리 교차로 근처에 70그루의 어린 참나무를 심었다.

Около 70 деревьев высади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рамках акции «Сад памят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7 мая состоялась высадка дубов в рамках акции «Сад памяти». Напомним,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запущено по всей стране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зад, его цель - высадить по всей стране и за рубежом 27 млн деревьев в память о каждом погибшем в год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В этом году на Сахалине расширить «Сад памяти» собрались жители город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ветеран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сотрудник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орода, депутаты. Все вместе высадили 70 молодых дубов в районе перекрестка улиц Пограничной и Горького.

<승리의 왈츠> 행사,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최

78주년 대조국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승리의 왈츠>행사가 시공원 댄스장에서 열렸다. 사할린주 청년청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 50명 이상의 대학생들과 학생 및 주민들이 참가했다고 전했다.

기상 여건으로 인해 행사 시작이 저녁으로 연기되었지만 댄스 행사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연극 공연에서는 승리의 날까지 살아남은 병사들의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로서 위대한 승리의 전장 속 이야기가 담겨있어 관객들은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대해 이야기하는 뮤지컬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다. 모두가 실제적인 인간의 역사와 운명을 접할 수 있었고, 무대

참가자들은 대조국 전쟁시절에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게 대한 추억으로 시를 낭송하고, 노래를 부르며, 전쟁시절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추었다.

이 행사 개최를 위해 한 달 이상 경험이 많은 가무인과 학생들이 작업을 준비했다. 참가자들은 일주일에 두 번, 몇 시간씩 왈츠를 연습하며, 시와 노래를 익혔다. 거의 5주간 연습하고, 최종 리허설까지 모두 <승리의 왈츠> 행사에서 춤추기 위함이었다.

<승리의 왈츠> 국제적 행사는 러시아에서 8번째 열리고 있으며, 그동안 이 기획을 대학과 교육기관을 비롯한 러시아 내 30개 도시의 주민들과 인근 다른 국가들도 지원해왔다.

Акция «Вальс Победы» прошл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 танцплощадке городского парка прошла патриотическая акция «Вальс Победы», посвященная 78-й годовщине Победы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Участниками акции стали более 50 сахалинских студентов, а также школьники и жители города, сообщила пресс-служба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з-за погодных условий начало акции было перенесено на вечернее время, но это никак не повлияло на качество мероприятия. В сценарии постановки заложена фронтовая история Великой Победы, реальные истории из жизни солдат, дошедших до победного дня. Зрителям показали театрално-хореографическо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рассказывающее о битве за Сталинград. Каждый смог прикоснуться к реальным человеческим историям и судьбам. Участники читали стихи и исполняли песни, танцевали под мелодии военных лет в память о тех, кто отдал жизни в год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Подготовка проходила больше месяца. С ребятами работали опытные хореографы. Участники разучивали вальсы по несколько часов два раза в неделю, учили тексты стихов и песен. Почти пять недель репетиций и генеральный прогон уже на самой площадке - все эт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танцевать тот самый «Вальс Победы».

Международная акция «Вальс Победы» проходит в России уже в восьмой раз. За все время существования проекта его поддержали университеты и учебные заведения, а также простые жители более 30 городов России и шести стран ближнего зарубежья.

Орора 항공, 2023년 1분기에 327,000여명 승객 수송

2023년 1분기 오르라의 총 승객수송량은 2022년 같은 기간에 비해 25% 증가하여, 승객 수는 327,732명 (2022년 -

262,524명)에 달했다고 항공사 홍보실에서 밝혔다.

올해 1분기에 오르라항공은 극동 단일 항공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지역 간 노선에서 승객 수송량을 30% 늘리고 지역 항공편에 보조금을 지원했다. 해당 노선을 이용한 총 승객 수는 114,197명, 운항 횟수는 2,432회였다.

이 항공사는 사할린 주, 연해주, 하바롭스크의 지역 예산으로 보조금을 받는 노선을 통해 35,280명의 승객을 수송했다. 승객 수송 증가율은 2022년 1분기 대비 3%이다.

중국과의 항공 연결 재개는 회사와 극동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일이었다. 지난 2월부터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하바롭스크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중국 하얼빈으로 가는 항공편에 2,200명 이상의 승객이 탑승했다. 현재 하바롭스크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중국으로 가는 정기 항공편이 있다. 하바롭스크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항공편은 주 2회, 하얼빈으로 가는 항공편은 주 3회,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베이징과 하얼빈으로 가는 항공편은 주 3회 운항된다.

Авиакомпания «Аврора» перевезла более 327 тыс. пассажиров в 1 квартале 2023 года

Общий пассажиропоток авиакомпании «Аврора» в первом квартале 2023 года вырос на 25% в сравнении с аналогичным периодом 2022 года и достиг 327 732 пассажира (в 2022 году — 262 524 пассажира), сообщила в пресс-службе перевозчика.

Авиакомпания «Аврора» за первый квартал текущего года увеличила пассажиропоток на 30% на маршрутах межрегиональных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х перевозок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программы единой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авиакомпании и субсидируемых региональных рейсов. Общим количеством пассажиров, воспользовавшихся перевозками по указанным маршрутам, стало 114 197 человек, а количество рейсов составило 2 432.

На маршрутах, субсидируемых из региональных бюдже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морского и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ев, авиаперевозчик перевез 35 280 пассажиров. Рост пассажиропотока составил 3%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ервым кварталом 2022 года..

Важным событием для компании и жителей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тало возобновление авиасообщения с Китаем. За неполных два месяца, начиная с февраля, на рейсах из Хабаровска и Владивостока в китайский Харбин перевезено более 2 200 пассажиров. Регулярные рейсы в Китай выполняются как из Хабаровска, так и из Владивостока. Рейсы из Хабаровска в Пекин будут выполняться два раза в неделю, в Харбин - три раза в неделю, а из Владивостока в Пекин и Харбин - по три раза в неделю.

(8면에 계속)

사할린의 최북단 도시 오하에서 한국어와 한민족 문화 관련 행사 진행

지난 4일(목)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800여 km 떨어진, 사할린 최북단 도시인 오하 시에서는 한국어, 한민족 문화와 관련된 행사를 펼쳤다. 이 행사는 사할린국립대 어문역사동양학 대학(학장 임엘비라) 교수와 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장소(소장 박상태) 대표가 뜻을 모아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오하 시 카르비세브 명칭 제7중학교에서 '시를 통해 지식을 향해' 시 낭독회, '한국의 전통 탈: 역사와 현대' 특강, 탈 만들기 마스터클래스, 그리고 '한국을 알아봐' 퀴즈 대회를 열었다.



2022년 9월부터 사할린국립대 한국어교수들이 이 학교 8학년 학생들을 위해 매주 온라인 한국어수업을 하고 있다. 학기가 마무리되면서 한국어 및 한민족 문화 보급으로 이 곳에서 대면으로 행사를 펼치는 게 마땅하다는 판단이었다.

시낭독회(담당 사할린국립대 최 인나 한국어교수)는 두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일부 학생들은 '아기잠(김동상 시)', '비누 방울' (목일신), '아기토끼'(박목월), '달달 무슨 달'(윤석중) 중에서 시 하나를 택해 한국어로 읊어야 했고, 다른 그룹 학생들은 러시아어로 번역된 한국어에 대한 시를 읊어야 했는데, 다수는 시조를 택하고 한 여학생은 러시아어로 번역된 사할린의 김중송 시인의 작품을 낭독하였다.

심사위원들은 학생 모두가 잘 준비했다고 입을 모았다. 낭독회 참가자는 책거리가 그려져 '학여불급'이란 고사상어가 쓰여진 머그컵을 받았다.

탈 관련 행사는 강의(담당 조 카리나 교수)와 마스터클래스(담당 어문역사동양학

대학 학장 임 엘비라 한국어교수)로 많은 관심을 이끌었다.

또한 '한국을 알아봐'퀴즈대회(담당 외국어학과장 코르네예와 인나 한국어교수)도 인기가 많았는데, 학생들은 한반도 지리, 한국 요리, 한국어, 국가에 대한 일반 정보, 전통 문화(총 40문항)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야 했다.

현재 오하에서는 한국어를 선택해 공부하는 학생은 별로 많지 않지만 이번 행사에 참가한 학생 중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학생이 생겼다고 사할린국립대 측에서 전했다. 교수들은 이 학생들 중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

오하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가 한국 알리기, 한국어와 한민족문화를 널리 보급하는데 실제로 큰 도움이 된다고 주최 측은 다시 한번 확신을 가졌다.

(배순신 기자)
(사진: 사할린국립대 제공)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린 군사행진에 1,000여 명 참가

(1면의 계속)

올해는 행진 대열에 특수 군사작전에서 전투를 벌인 전문 군사 장비차량 운전 참전자들이 참여했다. 이들 모두가 용맹의 훈장, 주코브 훈장, 수보로브 훈장 등 중요한 상을 받은 자들로서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우리 역사에 영웅적인 성과가 적지 않은데 파시즘에 대한 승리는 더욱 특별하게 우리의 역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해 우리는 영웅적인 선조들의 뛰어난 업적의 정신력을 더 강하게 느끼며, 소비에트 인민의 전투적인 승리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러시아는 변함없이 국익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돈바스에서는 68사단이 사할린과 쿠릴의 동원병 및 용병, 자원병들과 함께 전쟁의 교훈을 절대 잊지 않기 위해 우리의 조국과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라고 68사단 사령관 대령 안드레이 그레츠키 대령이 말했다.

17개의 행진 대열 뒤로 군사장비 차량의 행진이 이어졌다. 전례대로 23대의 군사장비 차량 중 전설적인 소비에트 차량 '카츄샤'가 선두로 나섰고, 사할린 군사행진에서는 처음으로 '파트리엇(애국)'를 기반으로 한 픽업 차량에 기관총을 장착한 차량이 행진에 나섰다. 관객들은 '우라간', '그라드' 다연장 로켓포 시스템과 S-400 '트리움프' 지대공 미사일, '바스티온' 해안 미사일 시스템의 행진을 볼 수 있었다.

이날 종일 '러시아는 나의 역사' 역사 기념 박물관 옆에서는 군사장비들이 전시됐다. 저녁에는 주민들과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을 위한 사할린 예술전문대학 예술단의 대규모 축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승리 광장에서는 공연이 열렸으며, 끝날 무렵 밤 10시에는 축하의 불꽃놀이가 펼쳐졌다. 이에 대해 사할린 주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이예식 기자 촬영)

재외동포청 본청 인천에 설치 통합민원실은 서울 광화문에

대사관 연계 업무 고려해 광화문에 민원실 본청서도 민원 업무 가능 이원 설치

'비효율' 지적에 "동포 입장에서선 여러 곳 있는 게 좋다 생각"

(서울=연합뉴스) = 다음 달 공식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은 본청이 인천에, 통합민원실이 서울에 각각 들어서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외교부는 "오는 6월 5일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와 관련해서 본청을 인천에,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들어서는 정부 전담기구로, 외교부 산하의 첫 청(廳)급 기관이다.

외교부는 그동안 국민의힘과 세 차례 당정협의를 열어 재외동포청 소재지 문제를 논의해 왔다.

재외동포의 편의성·접근성, 업무효율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소재지 상징성 등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동포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인천 두 지역으로 후보지를 압축하고 최적 입지를 검토했다.

그 결과 편의성·접근성과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 일관성 측면에서 본청은 인천에 두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다만 국적·사증·병역·세무·보훈·연금 등 각종 행정서비스

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정책 수요자인 재외동포들의 민원 업무 처리 효율성을 고려해 광화문에 설치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외국 국적인 재외동포들이 국적 사무, 사증 업무 등을 보려면 국적국 대사관과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가) 가깝게 있는 게 편리하다는 면이 많이 고려됐다"며 "대사관들의 입지만 아니면 광화문에 둘 이유는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외동포 본청에도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분소를 설치해 동포들이 서울과 인천 두 곳에서 모두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적, 병역, 보훈, 사증 업무만 처리할 수 있었던 기존 민원 범위를 확대해 세금, 연금, 관세 관련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 소재지는 그간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유치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선정 과정에서 다소 진통을 겪었다.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을 갖춰 재외동포들이 입출국 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워 유치를 강력하게 희망

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동포 편의 등을 고려할 때 서울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지난달 12일 당정 협의에서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뒤 외교부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재외동포들의 의견을 추가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고 이달 4일 다시 당정 협의가 열리는 등 논의를 거듭했다.

이 과정에서 결국 본청과 통합민원실의 '이원 설치'라는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원 설치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이 당국자는 "동포 입장에서선 가능한 여러 군데 있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며 "부처 이익, 인천시 이익 측면보다 동포 입장에서 어느 곳이 가장 좋겠냐는 측면서 판단한 것이라고 봐달라"고 했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청이 다음 달 5일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인천시, 행정안전부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구체적 입지 선정과 인프라 마련 등에 착수할 계획이다.

151명 규모로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은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관, 재외동포정책국, 교류협력국으로 구성되며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는 총 25명이 배치된다.

재외동포청 설치에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공약으로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로 선정되며 본궤도에 올랐다.

재외동포청을 통해 재외동포들에게 국내와 같은 수준의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재외동포재단(이하 재단)의 기존 사업인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을 승계해 수행하게 된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Мероприятия по языку и культуре Кореи прошли в Охе

4 мая в МБОУ СОШ №7 г. Охи им. Д.М. Карбышева состоялись мероприятия, посвященные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и культуре. Они были приурочены Году педагога и наставник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рганизатором мероприятий стала кафедра восточной филологии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ФГБОУ ВО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при поддержк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канцеляри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г. Владивостоке и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В этот день в школе прошли следующие мероприятия: конкурс декламации стихов «К знаниям через поэзию», открытая лекция на тему: «Корейские традиционные маски тхаль: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му искусству: изготовление традиционной маски тхаль из корейской бумаги ханджи, а также викторина «Узнай Корею».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этих мероприятий в Оху приехали преподавател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ахГУ и носител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анцелярии консульства.

Конкурс декламации прошел в двух номинациях: одна группа учащихся рассказывала предложенные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стихи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торая группа представила традиционную поэзию в жанре Сиджо, ребята декламировали стихи Ли Хён Бо «Лист лотоса», Ан Мун Ен «За оградой цветы», Чон Чоль «Такого друга верного, как этот...». Одна из участниц представила стихотворение известно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поэта Ким Цын Сона «Во всем и всюду остров мой неистов». Все члены жюри отметили прекрасную подготовку участников, интересный выбор стихов и творческий подход к выступлениям. Памятным подарком для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конкурса стали уникальные кружки с изображением книжной полки (кор. Чеккори) и выражением 학여불급, что в переводе означает «Оставаться жадным до знаний».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вызвала лекция о традиционных масках и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изготовлению масок из бумаги ханджи. В них приняло участие около 100 человек.

Свои знания о Корее можно было проверить в викторине «Узнай Корею», вопросы которой касались географ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общих сведений о стране, а также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льтуры. Нужно было ответить на 40 вопросов, и ребята просто отлично справились с этим.

Охинская школа имени Карбышева была выбрана местом проведения мероприятий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не случайно. С сентября 2022 г. педагоги СахГУ стали преподавать для желающих (8 класс)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Вот что сообщила директор ИФИИВ СахГУ Лим Эльвира Хаммоковна:

Мы с ними познакомилась два года назад, когда организовали ряд международ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 рамках гранта РООСК, кафедры иностранного языка и страноведения СахГУ и компании Эксон.

В прошлом году удалось съездить к ним в школу с рядом мероприятий. Так познакомилась очно с руководством школы. Директор МБОУ СОШ №7 г. Охи им.Д.М.Карбышева Мерена Елена Михайловна предложила расшири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университетом не только в области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но 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Мы понимали, что будет сложно проводить онлайн занятия, но согласились. Разрабатывали онлайн материалы, определяли методiku, учитывая расстояние и возраст. Это огромный труд как для педагогов, так и для ребят.

Мы надеемся, что в скором времени увидим абитуриентов из Охи, которые, поступив в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получат прекрасные зн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как иностранного, и вернутся в родную школу преподавать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А пока педагоги кафедры, несмотря на свою занятость, делают важное дело. Задел на будущее.

Учебный год подходит к завершению. Школьники очень обрадовались возможности встретиться со своими учителями. Прощаясь, бесконечно обнимали. Некоторые ребята после проведенных нами мероприятий очно тоже изъявили желание изучать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Организаторы отметили, что это был отличный опыт проведения мероприятий, участники показали высокую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ь в изуч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Кореи.

Виктория Бя
(фото представлено СахГУ)

Расходы южнокорейцев на мобильные игры достигли рекорда

В первом квартале этого года южнокорейцы потратили 1 млрд 550 млн долларов на мобильные игры, что является рекордным показателем.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портал data.ai, который анализирует мобильные данные. Нынешний показатель на 15% больше, чем в первом квартал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и на 18% больш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кварталом. В указанный период мобильные игры скачивались 140 млн раз, что на 9% больше, чем в четвертом квартал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Объем мирового рынка мобильных приложений составил в конце первого квартала 33 млрд 900 млн долларов, что также является рекордом. 60% из них пришлось на мобильные игры.

KBS World

На Сахалине отметили День почитания родителей

8 мая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отмечается День почитания родителей. Не так давно этот праздник стали отмечать 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мест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орейцев ежегодно отмечает этот праздник. В этом году традиция была продолжена.

«ЮСМООК поздравил наших бабушек и дедушек с днем родителей, важным праздником нашей диаспоры. Мы проводим его не только по традиции, но и в целях напоминания и сохранения культуры почитания и уважительного отношения к старшим, к своим родителям. В этот раз было многолюдно. Нашей организацией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приглашать на мероприятия «Клуба пожилых людей» (клуб собирается 2 раза в месяц) 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старше 75 лет. Всем приглашенным были вручены традиционный конверт и подарочные наборы», сообщил председатель ЮСМООК Лим Ден Хван.

Активистка ЮСМООК Татьяна И написала об этом событии следующее:

«На свои и выделенные спонсорами средства, сделали памятные подарки дедушкам и бабушкам, накрыли вкусный стол и провели праздничный концерт. Дети очень трогательно, от своего имени поздравили пожилых людей, пожелали долгих лет и крепкого здоровья, поклонились им по корейскому обычаю, чем вызвали у некоторых слезы умиления и благодарности. Несмотря на стесненные условия, пришло очень много народу, что не может не радовать. Все повеселились от души, овациями встречали каждый концертный номер и забыв о



почтенном возрасте, задорно пускались в пляс!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позировали на фотографиях и довольные разошлись по домам, желая, чтоб такие теплые, дружные встречи проходили почаще.

Мы со своей стороны стремимся собирать и объединять все поколения корейцев. Устраивать мероприятия, праздники и знакомить поближе младшее поколение с нашими богатыми народными традициями».

Как сообщило руководство ЮСМООК, планировалось объединить усилия нескольких корей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и пригласить на этот значимый праздник всех желающих не только с города, но и с районов. Праздник планировалось провести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но по причине занятости зала в этот день, было отказано в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помещения. Ответственные надеются, что придет день, когда в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состоится общее мероприятие всех корей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расположенных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Корсаков

Пусть все, кто зовется мамой и папой, будут согреты теплыми объятиями, словами любви и благодарности.

Сохраняя уважение к родителям, предкам и старшим,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поздравила первое поколение корейцев.

За вкусным обедом пели песни, много смеялись, болтали и веселились.

Было много пожеланий здоровья и счастья.

Также в честь праздник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ОО СК вручили подготовленные продуктовые



наборы для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сообщила член правления Ассоциации Юлия Ким.

Анива

В преддверии Дня родителей (обои наль) врио президента РООСК посетила город Анива. На встрече совместно с активистами района поздравили первое поколени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были вручены памятные знаки в честь 75-ле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 также провели время за кружечкой ароматного чая и угощениями.

Приятно видеть и сознавать, что наши мамы, папы, бабушки и дедушки находятся в добром здравии.

Организация в честь Дня родителей для все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подготовила продуктовые наборы (398 шт.), которые будут доставлены каждому адресату. Празднич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также состоялось в Углегорске. Об этом сообщает телеграмм-канал Корейский телеграф.

Подготовила Виктория Бя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местными корейски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Южнокорейским детям не хватает времени на отдых

Семь из восьм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детей не чувствуют себя счастливыми. На это указывают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проведенного детским фондом «Зеленый зонт» в ноябре-дека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среди 2.231 школьника. Выяснилось, что у 86,9% детей уровень счастья оказался на низком уровне, что на 2,5% больше,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Данный показатель определяется исходя из четырех факторов по-

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детей – сон, учёба, медиа и спорт. Уровень детского счастья в этом году составил 1,66 балла из четырех возможных. В целом отметка незначительно изменилась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и годами. Тем не менее в течение трёх лет наблюдается рост доли детей, уделяющих чрезмерное количество времени учёбе и страдающих от недосыпа.

KBS World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В Сеуле состоялся южнокорейско-японский саммит

В ходе встречи, состоявшейся 7 мая в Сеуле,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и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Японии Фумио Кисида обсудили вопрос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Выступая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после встречи, Юн Сок Ёль отметил, что ответный визит Фумио Кисиды в РК ознаменовал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челночной дипломатии» в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ях. Глава япон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ддержал эту позицию, заявив, что стороны продолжают общение на различн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площадках, укрепляя двусторонние отношения. В повестку встречи вошли вопросы, касающиеся инспекций аварийной АЭС «Фукусима»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экспертам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фере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цепочек поставок. Юн Сок Ёль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проведение объективной и основанной на научном подходе проверки АЭС «Фукусима», с которой планируется сброс загрязнённой воды. Фумио Кисида пообещал, что сброс воды не ухудшит эколог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и не окажет отрицательного влияния на здоровье южнокорейцев. Коснувшись исторических споров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японский премьер заявил, что был тронут стремлением Сеула к отношениям, устремлённым в будущее,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многие южнокорейцы сохраняют память о сложном прошлом в отношениях двух стран. При этом он не принёс извинений и сожалений по поводу преступлений, совершённых Японией в отношении жителей Кореи в колониальный период.

РК расширяет рамки труд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для обладателей визы F-4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РК расширит список специальностей, доступных к трудоустройству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находящихся в стране по визе для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F-4. Эта мера направлена на решение проблемы нехватки рабочих кадров в ряде сегментов рынка труда. С мая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будет разрешено выполнять четыре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вида деятельности в заведениях общепита и два – в отелях, в том числе работа помощниками на кухне столовых, кафе и ресторанов быстрого питания. В регионах, столкнувшихся с проблемой сокращения населения,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могут работать практически во всех сферах. Исключением являются увеселительные заведения и другие сегменты, противоречащие принципам социального порядка. В минюсте сообщили, что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2021 год в стране проживали более 478 тыс.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с визой F-4. 74,1% из них приходятся на выходцев из Китая, 8,9% - из США, 5,4% - из России.

РК усиливает миграционный контроль

В результате проведения мероприятий по пресечению нарушений иммиграционног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в марте и апреле в РК было выявлено 7.578 иностранцев, находившихся в стране нелегально.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юстиции. 6.863 человека были депортированы из страны, ещё 208 человек подвергнуты штрафам. Проверка осуществлялась в сферах, представляющих наибольший социальный ущерб и серьёзную конкуренцию гражданам страны в вопросе рабочих мест.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с начала года запустило режим постоянного контроля за нарушениями миграционного контроля. В результате до апреля численность нарушителей снизилась на 25 тыс. человек.

В РК готовятся к дальнейшему смягчению карантинных мер

После того, как Всемир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ОЗ) отменила статус пандемии для COVID-19,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начало готовиться к дальнейшему смягчению карантинных мер. На первом этапе степень угрозы коронавируса будет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снижена с максимального уровня «Опасность» до «Осторожность». Кроме того, срок карантина в случае заражения сократится с семи до пяти дней, а временные диагностические центры прекратят работу. Будет также отменена рекомендация о проведении ПЦР-теста в течение трёх дней после прибытия в РК. Статистика количества новых случаев COVID-19 будет предоставляться не ежедневно, а еженедельно. Количество коек для заражённых сократится, а контроль за эпидем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ей перейдёт от центрального штаба п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ю стихийным бедствиям и катастрофам к министерству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Между тем, сохранятся масочный режим в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ях, а также бесплатные вакцинация, диагностика и лечение заражённых. На втором этапе произойдут полная отмена масочного режима и возвращение к обычной жизни во всех сферах. Бесплатные вакцинация, диагностика и лечение сохранятся лишь для уязвимых слоёв населения. Заключительный этап предполагает полное снятие противоэпидемических мер. Карантинные власти считают, что этот этап станет возможен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RKI)

Принят Основной закон о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ах (재외동포기본법)

27 апреля на пленарном заседани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был принят Основной закон о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ах, который имеет прямое отношение к 7,5 миллион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Принятие Закона стало завершающим этапом в подготовительном процессе учреждения Департамента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официальная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которого состоится 5 июня 2023 года.

Департамент(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при Министерстве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призван стать своеобразным CONTROL TOWER (букв. контрольно-диспетчерский пункт в аэропорту), то есть неки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органом, способствующим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анализу и контролю законодательных актов, принимаемых в отношении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а также сбору информации о положени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роживающих как за рубежом, так и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что работа этого Департамента сможет оперативно решать консульские, юридические и прочие вопросы, поступающие от граждан Кореи, проживающих за рубежом, а также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общинам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8 мая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местом расположения основного офиса Агентства стал город Инчхон, который получил наи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баллов в конкурсе, в Сеуле же будет располагаться Центр поддержки обслуживания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объединенный офис по гражданским делам).

Основной закон о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ах состоит из 16 пунктов:

1. 목적 (Цель)
2. 재외동포와 재외동포정책 정의 (Определение статуса зарубежного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 и политики в отношении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3.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политики в отношении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4. 국가의 책무(Обязательства государства)
5. 국제사회와의 조화 (Гармонизация с международным сообществом)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 с другими законами)

7. 기본계획의 수립 (Принятие основного плана)
8. 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 (План реализации и оценка)
9. 업무협조 (Делов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10. 재외동포정책위원회 (Комитет по реализации политики в отношении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11.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 (Создание Центра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зарубежными корейцами)
12. 재외공관 등의 역할 (Роль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миссий, находящихся за рубежом и др. ведомств)
13. 재외동포의 의견 청취 (Учет мнений от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14. 실태조사 (Социологические опросы)
15. 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주간 (День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и Неделя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16. 국회 보고 (Отчет Национ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Какое отношение имеет этот Закон для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е постоянно проживают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В частности, в главе 3 пункт 4 сказано: «국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 출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체류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고,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서 권익신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Государство обязуется прилагать усилия,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комфорт и удобство для въезжающих на территорию Кореи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или постоянно проживающих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ореи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существующими нормативными актами и законами, а также, оказывая помощь в интеграции в Корею,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расширению их прав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ореи.)

Тен Жанна,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директор АКРК
Телеграмм-канал: <https://t.me/akrk2018>
Сайт: <https://koryosaram.org>
Ютуб-канал: <https://youtube.com/@koryosaraminkorea>

На Юге и Севере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рошли мероприятия в честь Дня Победы

В праздничные дни на юге и севере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рактически каждый день проходили мероприятия, посвященные 78-летию Победы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Фото: Официальная страница посольства РФ в соцсетях



5 мая в Мраморном зале посольства РФ в Сеуле состоялся праздничный концерт школы посольства "Победная весна". Как говорится в пресс-релизе мероприятия, "все учащиеся школы от самых юных до старшекласников исполнили трогательные и знакомые песни" как "Белые журавли", "Катюша", "День Победы" и другие.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в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лице прошла акция "Бессмертный полк", которая впервые после 2019 года в Южной Корее была проведена в очном формате.

Как сообщается на официальной странице посольства РФ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в акц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около 150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роживающих в РК,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ординационного совета организаций россий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КСОРС), сотрудники посольства, Рос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ряда российских загранучреждений, а также граждане РК.

Все они прошли с портретами свои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которые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После шествия состоялся концерт, посвященный Дню Победы.

Посол РФ в Сеуле Андрей Борисович Кулик выступил с приветственной речью, в которой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Победа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 это особая победа, потому что в этой войне речь шла о тотальном уничтожении нашего государства, нашего народа, нашей цивилизации. "Все то, что мы имеем,

мы сами - это продолжение Победы, - отметил глава посольства.

Череда праздн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одновременно в эти же дни проходили и на севере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 в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где расположено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памятников и захоронений воинов Советской Армии, освобождавших Корею в 1945 году.

Как сообщили в посольстве РФ в Пхеньяне, дипломаты российского посольства и сотрудники военного атташата посетили мемориальные комплексы в городах Тонлим, Синьджу, Ыйджу, Хэджу, Напмхо, возложив букеты.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в День Победы 9 мая прошла церемония возложения венков к "Монументу освобождения" (Хэбантхап) в центре Пхеньяна, а также к мемориалу в городе Расон, что на северо-востоке страны, где продолжает работу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е совместное предприятие "Расонконтранс".

Тогда же в обоих городах состоялась и акция "Бессмертный полк", в которой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ков россиян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ластей КНДР. 11 мая был запланирован выезд российских дипломатов в города восточного побережья КНДР Вонсан и Хамхын для возложения венков в честь Праздника Победы.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Ф)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будет сотрудничать с Музыкальной академией Ларисы Долиной на постоянной основе

Соглашение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подписали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народная артистка России Лариса Долина. Регион и Музыкальная академия будут вести совместную работу по поиску и развитию талантливых вокалистов и музыкантов, а также проводить обучающие мероприятия для начинающих артистов и музыкальных педагогов.

— С этого момента мы вместе будем раскрывать творческий потенциал юных исполнителей в регионе, наставники Музыкальной академии будут приезжат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 работать с учениками на регулярной основе, — отметила народная артистка России Лариса Долина.

Сахалин стал четвертым регионом-партнером Музыкальной академии Ларисы Долиной. Ранее соглашения были подписаны с Самарской, Волгоградской и Челябинской областями, где также созданы и активно работают региональные группы Академии и ведется системная работа с вокалистами, музыкантами и музыкальными педагогами.

Напомним, на Сахалине уже создана региональная группа вокалистов Музыкальной академии: с 22 учениками, прошедшими серьезный отбор, активно работают наставники Музыкальной академии, ранее педагоги Академии провели серию мастер-классов в регионе, в которы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120 сахалинцев. В планах также работа с оркестрами и хоровыми коллективам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организация концерта с участием учеников сахалинской группы, наставников Академии и народной артистки России Ларисы Долиной.

— Я с детства стою на сцене, в музыке вся моя жизнь. Уже несколько лет обучаюсь в Сахалинском колледже искусств. А с этого года еще и у наставников Музыкальной академии. Это потрясающий опыт, который помогает открыть в себе новые грани. Мечтаю о большой сцене, уверена, что все получится, — поделилась одна из студенток Музыкальной академии.

Следующий приезд наставников Музыкальной академии в регион запланирован на начало июня этого года. В июле начнется работа по созданию шоу программы для концерта, который состоится в августе в рамках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форума «Острова». Также участников ждет череда концертов по районам области.

Более 54 километров трассы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Оха заасфальтируют в этом году

До конца 2023 года будет модернизировано 37 километров федеральной дороги на участках от Тымовского до Ноглик и от Ноглик до Охи и 17 километров на участке от Тымовского до Смирных.

Специалисты приступили к капитальному ремонту на участках трассы в Тымовском районе, там обустроят временные объезды. На территории муниципалитета реконструировать предстоит три участка федеральной дороги (км 436 – км 447, км 447 – км 453, км 456 – км 465).

— В рамках капитального ремонта заасфальтируем покрытие. Таким образом,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работ грунтовые разрывы будут ликвидированы более чем на 25 километрах трассы, из них 17 километров введем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в 2023 году. Работы на оставшихся 8 километрах, согласно заданию, планируется завершить в 2024 году, — рассказал директор подведомственного Росавтодора ФКУ ДСД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Сергей Петраев.

Для повышения уровня безопасности дорожного движения в рамках капитального ремонта также предусмотрено устройство освещения на площадке отдыха на 446-м километре и на железнодорожных переездах на 464-м и 520-м километрах трассы.

— Я много времени провожу в дороге и по работе, и на отдых на охоту и рыбалку часто езжу по федеральной трассе. Конечно, радует, что дороги строят. Ездить комфортно и ходовая часть машины на хорошем покрытии не разбивается. Жду завершения асфальтирования на новых участках, — поделился житель Тымовского района Иван.

Отметим, в 2022 году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провели на 59 километрах федеральной автодорог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Оха. В этом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модернизировать более 54 километров трассы, в том числе 37 километров на участках от Тымовского до Ноглик и от Ноглик до Охи и 17 километров на участке от Тымовского до Смирных. Полностью завершить асфальтирование автодорог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Оха планируется до конца 2024 года.

Напомним, дорога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Оха была передана в федеральную собственность в 2021 году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Это позволило высвободить значительные средства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и направить их на модернизацию региональных и местных дорог. Так, в этом году в области планируется отремонтировать 38 километров региональных и местных дорог. Работы будут выполнены с привлечением региональных и федеральных средств, в том числе –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Безопасные качественные дороги». Всего на эти цели планируется направить 9,4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Основные работы проведут на территориях Анивского, Невельского, Холмского, Томаринского районов и в границах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агломерации. За счет средств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приступят к реконструкции автомобильной дороги Курильск – Рейдово на Итуру-

пе, а также к асфальтированию участков в Южно-Курильском городском округе на Кунашире.

Среди крупнейших проектов – продолжение капитального ремонта автодороги Невельск – Томари – аэропорт Шахтерск. Начн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ых мостов через реку Парусную Томаринского района и ручей на автодороге Невельск – Томари – аэропорт Шахтерск у Пензенского. Кроме того, запланирован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сооружений через реки Быструю у села Огоньки и Ильинку в Томаринском районе, ремонт мостового перехода через реку Амурскую автодороги Невельск – Шебунино у села Лопатино. Продолжится реконструкция моста через реку Целебную в селе Яблочное Холмского района.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продолжают уделять содержанию автомобильных дорог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области – это более 600 километров. На эти цели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направят 1,7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Прокуратура,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и контрольно-надзорные структуры выступили за снижение количества проверок бизнеса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ом совещании при прокурор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священном состоянию законности в сфере защиты прав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при осуществле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контроля.

В марте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выступая на расширенном заседании коллегии Генеральной прокуратур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метил, что против нашей страны развязана настоящая санкционная агрессия.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поставил перед прокурорами задачу – содействовать ликвидации избыточных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барьеров. На все действия со стороны наших недоброжелателей и противника мы должны ответить одним – расширением 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вобод, сказал Президент. Реализации задачи, которую поставил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было посвящено совещание с участие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егиональной власти, контрольных органов, деловых объединений.

В 2022 году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благодаря открытости властей в работе с бизнес-кругами, широкому набору мер поддержк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вошла в ТОП-5 Национального рейтинга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и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На островах успешно снижаются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барьеры. По этому показателю область занимает 14 место в федеральном рейтинге.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быстро растет объем инвестиций в основной капитал. В 2020 году он составлял 217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В 2022 – 261 миллиард. Прирост достигнут в основном за счет несырьевых отраслей. При этом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вложения в сфере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составили 20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 Но нет предела совершенству. Обращаюсь к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контрольных органов, не гонитесь за показателями. Основная на них оценка эффективности деятельности ваших служб не всегда объективна, и зачастую влияет на экономику, — сказал прокур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ячеслав Шайбеков.

Между тем, действующие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контрольные органы не всегда придерживаются такой политики.

— В каждом случае следует принимать взвешенное решение о том, насколько обоснована та или иная проверка. Необходимо внедрять риск-ориентированный подход. Он предполагает снижение числ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проверок там, где риск нарушений ниже. Действуя таким образом, мы откроем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развития бизнеса и, в конечном счете, обеспечим рост экономики и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отметил Алексей Белик.

Участники совещания высказались за снижение количества плановых и внеплановых проверок,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х мероприятий, которые негативно влияют на работу бизнеса. Они считают, что в случае выявления нарушений необходимо вместо штрафа чаще применять предостережение. По итогам обсуждения выработаны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совместные меры, призванные улучшить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прокуратуры,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контрольно-надзорных структур и деловых объединений в интересах защиты прав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В Сахалин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начал работу военный учебный центр

Совместными усилиям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университет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университете запущен военный учебный центр. В рамках центра студенты будут иметь возможность изучения основ военной подготовки.

Военный учебный центр при Сахалин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открывает новые возможности не только для студентов. Он делает островной вуз более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м местом для обучения, позволяя выпускникам на выходе получить воинскую специальность. Такая возможность реализована в большинстве крупных вузов страны, и только СахГУ был лишён её до недавнего времени.

— Работа по созданию на базе СахГУ военного учебно-го центра велась давно. Мы регулярно получали запрос от студентов и их родителей н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освоения военной специальности без отрыва от обучения, — 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ячеслав Аленьков.

Студенты будут обучаться на очной форме. При первом наборе на обучение в военный учебный центр будут приниматься студенты 1 и 2 курса, которые с 1 сентября перейдут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на 2 и 3 курсы. Они еще успеют пройти программу военной подготовки, которая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обучение в течение 4 семестров. В конце обучения студентов ожидают учебные сборы в близлежащих частях, где в течение месяца они будут на практике закреплять полученные теоретические знания.

В случае успешного прохождения военной подготовки и учебного сбора, студентам приписываются воинские звани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рограммой обучения. Это может быть либо солдат (матрос) запаса, либо сержант/старшина запаса, и им выдается военный билет с зачислением в запас.

— Военные учебные центры занимаются подготовкой кадровых офицеров, офицеров запаса, солдат и сержантов запаса. На базе СахГУ обучение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ся, начиная с 1 сентября 2023 года, — пояснил начальник Военного учебного центра при Сахалин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подполковник Андрей Дёмкин.

Прием заявлений на обучение в военном учебном центре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в рабочие дни, с 12:00 до 15:00, по адресу: ул.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проспект, 33 (кабинет № 9). Консультации по телефону также доступны для всех желающих по номеру: 8(4242)452-307.

На Сахалине стартовала посевная кампания

К весенним полевым работам приступили хозяйства южной части региона. Теплая погода позволила начать работы на неделю ран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Благодаря мерам поддержк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стровным сельхозпредприятиям удается оптимизировать сроки весенних полевых работ, увеличивать урожайность и повышать уровень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

Традиционно первой в поле «переезжает» подростковая рассада капусты. Посадку ранних сортов и посев зеленных культур начали в совхозах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и «Тепличный», а в совхозе «Корсаковский» стартовал посев многолетних и однолетних кормовых трав.

— Ежегодно мы подбираем сорта, которые адаптированы к нашему климату и региону. Так как в этом году на посадку вышли раньше, то местная капуста на столах сахалинцев появится уже в середине июня. Всего для посадки капусты всех сортов у нас предназначено 60 гектаров, — рассказала главный агроном совхоз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Анастасия Семакина.

Посевную кампанию развернули не только крупные сельхозпроизводители, но и фермерские хозяйства. Так, анивский фермер Андрей Сивоконь уже высадил раннюю капусту и посеял морковь.

В целом на сегодня сельхозпроизводителями посажено 5 га капусты, посеяно 3 га моркови, 3 га прочих овощей и 30 га многолетних трав. Ещё раньше хозяйства приступили к подкормке многолетних трав посева прошлых лет – удобрения внесены на площади более 2500 га.

— В этом году подготовка аграриев региона прошл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ланом. Хозяйства своевременно обеспечили себя всеми необходимыми материально-техническими ресурсами: подготовил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ую технику и собственный семенной картофель, закупили семена овощных культур и картофель элитных репродукций, законтрактовали поставку минеральных удобрений и средств защиты растений. Поэтому мы уверены, что полевые работы пройдут в оптимальные сроки, — отметила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министерства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торгов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льга Шкардюк.

В этом году посевные площади пропашных культур сохраняются на уровне 2022 года. Всего планируется засеять порядка 2000 га картофелем и 600 га овощами открытого грунта, а также обновить многолетние травы и посеять однолетние кормовые культуры на площади 4000 га. Всего же кормовые культуры занимают 25,9 тысяч гектар. Этого достаточно,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свежей местной продукцией.

По мере готовности полей к посевной присоединятся и остальные аграрии региона. Как правило, хозяйства в центральной и северной части острова начинают полевые работы на 2-3 недели позднее.

Напомним, региональ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оказывает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островному агропромышленному комплексу. Сельхозпроизводителям субсидируется доставка и внесение минеральных удобрений, покупка элитных семян картофеля и кормовых культур, приобретение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техники и оборудования.

Такж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де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агр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парка с оптово-распределительным центром, который позволит круглый год обеспечивать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качественной продукцией. В составе объекта – современные складские помещения, способные создать температурный режим для самых разных видов продуктов, а также обеспеченные всем необходимым площадью для пищевых производств. С запуском агропарка сократятся потери при хранении и увеличится переработка продукции мест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고령군, 농촌지도자 고령군연합회 어버이날 맞이 대창양로원 봉사활동!!

(사)한국농촌지도자 고령군연합회는 어버이날을 맞아 2023년 5월 8일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매촌리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대창양로원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사할린 동포 어르신들을 찾아 뵙고 강제징용으로 모국을 떠나 사할린에서 눈물로 한세월을 보내신 어르신들께 만수무강을 기원 드리고, 회원들이 직접 농사지은 농산물(수박, 멜론, 감자 등)과 떡, 고기, 음료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신월식 대창양로원 원장은 "농촌지도자 고령군연합회에서 해마다 어르신들을 위하여 방문해 주셔서 마음속 깊이 감사드리며, 양로원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농촌지도자 연합회에서 지역사회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고 더욱이 직접 농사지은 고령군 명품 농산물을 전달해주어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큰 의미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세계뉴스통신]



농촌지도자 고령군연합회 어버이날 맞이 대창양로원 봉사

백석대, '사할린 동포' 어버이날 행사 학생들 '건강 체크·돌보기제공' 등 훈훈

백석대학교(총장 장중현)는 8일 교내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천안에 정착해 거주하고 있는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자' 31명을 초청해 건강 체크, 청춘 사진 촬영 등을 진행했다.

이날 백석대 관광학부 항공 서비스전공은 '청춘을 돌려드립니다'를 주제로 어르신들의 헤어, 메이크업을 진행했다. 간호학과는 '웰니스, 건강 가이드'를 주제로 혈압과 혈당, 체질량지수 측정해 건강 이상 징후를 안내했다.

보건학부 안경광학과는 '눈 건강 교육과 시력검사'로 시력 측정을 진행하고 돌보기를 제공했다.

스포츠과학부 스포츠 건강 관리전공은 '스포츠 마사지 및 스트레칭 운동'이라는 주제 아래 스포츠 마사지와 어르신들이 운동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소도구 운동 교육을 운영했다.

행사 중에는 어르신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음식으로 점심 식사를 마련해 대접하는 순서도 준비돼 눈길을 끌었다.

백석대 장학학 대학혁신위원장은 "재학생들이 대학에서 배운 지식으로 누군가에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는 데서 기쁨과 뿌듯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석대는 지난 2013년부터 '사할린 동포와 함께하는 설 명절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신문)



▲ 천안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 영주 귀국자들이 8일 백석대에서 건강진료를 받고 있다. (백석대 제공)

청주 오송읍 지사협, 사할린 한인영주귀국 15주년 경로잔치

지난 6일 만수 3리 경로당에서 오송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원용숙)는 2008년 오송읍 청원오송휴먼시아 1단지에 최초 입주한 지 15주년이 된 사할린 한인 50여명과 경로당 이용 어르신 20여명을 대상으로 행사를 마련했다.

이들은 정성 가득한 식사와 함께 색소폰 연주 등 흥겨운 무대를 만들어 어르신들이 함께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선물했다.

자리에 함께한 여운석 오송읍장은 "사할린 한인 어르신들이 오송에서 함께 하신 지 15주년이 되는 행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고맙다"고 말했다.

원용숙 오송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은 "오송읍이 서로 주위를 한번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이 모여 함께 어우러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지역이 되길 바란다"며 "힘들게 고향에서 다시 터전을 이룬 사할린 한인 어르신들이 오송에서 즐겁게 삶을 이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청일보)

'제22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9월 6~8일 부산서 개최

'글로벌 한인 차세대 여성리더를 주목하라' 주제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와 공동으로 오는 9월 6~8일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제22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 이하 코윈) 대회는 2001년 여성부 출범과 함께 시작돼 올해로 22번째 개최되는 국제 행사로, 전 세계 62개국 1만여 명의 국내외 한인여성이 함께 모여 소통하는 교류의 장이다.

2009년부터 지역 간 여성정책 교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개최해 왔으며, 부산에서는 2010년 개최 이후 13년 만에 다시 개최된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 주제는 '글로벌 한인 차세대 여성리더를 주

목하라'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전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한인 여성 지도자 및 차세대 여성 지도자 등 5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대회 기간 동안 개최식을 시작으로 ▲기조연설 ▲글로벌 여성지도자 대토론회(포럼) ▲과학·기술·경제·교육·문화 등 활동분야별 교류 ▲부산지역문화탐방 등이 진행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는 국내외 한인여성 간 교류와 연대를 위해 지난 22년간 명실상부한 한인여성 교류의 중심으로 자리잡아 왔다"며, "코윈(KOWIN) 대회를 통해 재외한인 여성들의 역량강화와 함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공감대를 보다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신문)

법무부, 구인난 해소 위해 재외동포 취업 범위 확대

모든 재외동포(F-4), 주방보조원 등 6개 직종 취업 허용, 인구감소 지역 거주 재외동포에는 단순노무 등 53개 직종 취업 허용

법무부는 인력 부족을 겪는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 지역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개정, 5월부터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를 확대했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국내 취업이 가능하지만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단순노무 직업 등 제한 직종을 고시하고 있다.

먼저 이번 개정으로 재외동포(F-4)의 음식점업 및 숙박업 분야 6개 직종의 취업이 새롭게 허용됐다.

주방보조원이나 호텔서비스원 등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인력 부족률이 5.3%로 높아,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해당 분야 취업 제한 완화에 대해 지속 협의한 결과 이렇게 결정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전(全) 산업 평균 인력부족률은 3.4%다.

새롭게 재외동포의 취업이 가능해진 6개 분야는 음식점업 4개(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

서비스 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 숙박업 2개(호텔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 등이다.

인구감소지역 거주 재외동포(F-4)에 대해서는 단순노무직을 포함해 53개 직종의 취업이 허용된다.

법무부는 인구절벽 및 지역소멸 위기극복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재외동포의 해당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F-4)에 대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그간 제한됐던 직종의 취업을 모두 허용했다고 밝혔다.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유희주점영업,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 등에 취업하는 행위 등이며 그간 제한됐던 업종은 단순노무직 41개(이삿짐반원, 건물청소원 등), 서비스직 11개(목욕관리사, 골프장캐디 등), 판매직 1개(노점판매원) 등이다.

(재외동포신문)

세종학당재단-KBS, '글로벌 우리말겨루기' 예선 개최

5~7월 프랑스·이집트·베트남·미국 4개소 세종학당서 예선 통해 본선 진출자 2인 가려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이해영)은 한국방송공사(KBS)와 함께 해외 세종학당을 무대로 특집 '글로벌 우리말겨루기' 방송 제작을 추진한다고 5월 4일 밝혔다.

'우리말겨루기'는 지난 2003년 시작해 20년째 방영되고 있는 KBS 대표 교양 프로그램이다. KBS는 세종학당재단과 협력해 세계 각국 세종학당의 한국어 학습 열기와 한류 확산 현장을 알리고, 세계 속 우리말의 위상을 높이고자 특집 '글로벌 우리말겨루기'를 기획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5월부터 7월까지 프랑스, 이집트, 베트남, 미국 내 4개소 세종학당에서 순차적으로 '글로벌 우리말겨루기' 예선 녹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선은 ▲5월 24일 프랑스 거점 세종학당(파리)을 시작으로 ▲5월 28일 주이집트한국문화원 세종학당(카이로) ▲6월 24일 베트남 거점 세종학당(호

찌민) ▲7월 미국 거점 세종학당(LA) 순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녹화는 야외와 실내에서 1, 2부로 진행되며, 현지 국가 문화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한국어 문제가 출제된다.

각 세종학당별 예선을 통과한 우승자 및 준우승자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함께 오는 9월 서울 KBS에서 열리는 '글로벌 우리말겨루기' 본선 진출권이 주어진다. 본선에서는 각 세종학당 대표 2인으로 구성된 총 4개 팀이 출전에 한국어 실력을 겨루게 되며, 최종 우승팀은 총 1천만 원의 상금을 받게 된다.

참가 신청은 세종학당 재학생 및 졸업생이라면 누구나 예선이 개최되는 세종학당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세종학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각 예선은 오는 9월 11일부터 KBS '우리말겨루기'를 통해 매주 방송될 예정이며, '글로벌 우리말겨루기' 본선은 10월 9일 한글날 특집으로 방영된다.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유즈노사할린스크, "아나톨리치의 건강" 여섯 번째 시즌 시작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아나톨리치의 건강" 여섯 번째 시즌이 시작되었다. 사할린 주 체육부의 언론 서비스에 따르면 약 200명의 사람들이 크로스 컨트리 스키 트랙 옆 부지에서 아침 운동 및 스포츠 축제에 참여했다.

본격적인 워밍업으로 훈련을 시작한 후 선수들은 팔 굽혀 펴기와 윗몸 일으키기를 각각 40회를 수행했다. 수업의 두 번째 파트에는 다양한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운동이 포함되었다.

커뮤니티 트레이너인 안드레이 "아나톨리치" 미로시니코프는 체력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중에는 저녁 수업이 진행되며, 주말에는 고르니 워즈투흐 스포츠 복합 단지에서 야외 수업이 진행된다.

Шестой сезон «Здоровья от Анатолича» стартова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6 мая состоялось торжественное открытие шестого сезона проекта «Здоровье от Анатолича». Около 200 человек участвовали в утренней зарядке и спортивном празднике на площадке рядом с лыжероллерной трассой,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ренировка началась с энергичной разминки, а затем спортсмены сделали по 400 отжиманий и приседаний. Вторая часть занятия включала в себя комплекс упражнений, призванных укрепить различные группы мышц.

Тренер-общественник Андрей «Анатолич» Мирошников заявил, что занятия могут посещать все желающие, независимо от уровня физической подготовки. Вечерние занятия проходят по будням, а по выходным можно заниматься на свежем воздухе на СТК «Горный воздух».

러시아 정부, 특별군사 작전 참가자들을 위한 무상 소포배송 서비스 시작

러시아 정부의 지침으로 특별 군사 작전 참가자들을 위해 최대 10kg의 소포를 무료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소식은 드미트리 체르니셴코 러시아 부총리의 말을 인용하여 타스 통신에서 보도했다.

"전승절 전날에는 군인들이 친구와 가족과의 소통과 관심을 받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특별 군사 작전 참가자에게 최대 10kg의 소포를 무료로 보낼 수 있도록 결정하고 이에 적절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조치는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라고 체르니셴코가 전했다. 그리고 한 명의 발신인이 보낼 수 있는 최대 10kg까지의 소포 수는 제한 없이 발송이 가능하다고 부총리실에서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러시아 우체국 고객센터(8-800-100-00-00)로 문의할 수 있다.

Посылки до 10 килограммов для участников СВО разрешили отправлять бесплатно

Посылки для участников СВО весом до 10 килограммов с 1 мая 2023 года можно отправить бесплатно. Такое поручение дал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 Об этом сообщает ТАСС со ссылкой на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Дмитрия Чернышенко.

"В преддверии Дня Победы особенно важно, чтобы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ощутили внимание и заботу со стороны друзей и близких. Мы приняли решение и дал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поручения, чтобы посылки весом до 10 кг для участников СВО доставлялись бесплатно. Эта мера действует с 1 мая 2023 года", - сообщил Чернышенко

Число посылок до 10 кг, которое может оформить один отправитель, не ограничено, добавили в аппарате вице-преьера.

Подробную информацию можно уточнить в контакт-центре "Почты России" по телефону 8-800-100-00-00.

1천, 5천 루블리 신권 지폐, 여름에 러시아 국민들에게 선보인다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이 1,000루블리와 5,000루블리의 최신화된 신권 지폐를 발행한다. 전문가 그룹은 니쵤고로드스키 성채와 고스뱅크(국가은행), 막심 고르키의 기념비, 예카테린부르크의 파노라마 풍경 등 30개의 디자인들을 제시했다.

'타스' 통신이 새로운 디자인의 지폐가 2023년 여름에 발행된다고 전한 가운데 "최신화된 지폐는 개선된 디자인과 완벽한 복합적 보안 구성 및 내구성도 강하다. 개선된 신권 지폐는 위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유통되는 지폐의 품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 세르게이 벨로브 부행장의 발표를 인용했다.

신권 지폐는 올해 유통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폐 내용 구성은 이미 확정됐다. 2024년에는 500루블리 신권 지폐가, 2025년에는 10루블리와 50 루블리의 신권 지폐가 발행된다.

Новые купюры номиналом 1000 и 5000 рублей представят россиянам летом

Центробанк РФ презентует модернизированные банкноты в 1000 и 5000 рублей. Экспертные группы предлагали около 30 эскизов, в том числе с изображением Нижегородского кремля, Госбанка, памятника Максиму Горькому и панорамным видом Екатеринбурга.

Как сообщает ТАСС, новый дизайн купюр представят летом 2023 года.

"Модernизированные банкноты будут иметь улучшенный дизайн, у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ный защитный комплекс, высокую износостойчивость. Модернизация позволит обеспечить надёжную защиту от подделки и повысить качество банкнот в обращении", - цитирует издание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ЦБ РФ Сергея Белова.

Ожидается, что новые банкноты поступят в обращение в этом году, их концепцию уже утвердили. В 2024 году модернизируют купюры номиналом 500 рублей, в 2025 году - 10 и 50 рублей.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 полугодие 2023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6 месяцев — 606 руб. 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 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옥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